

19세기 소설사의 쟁점과 전망

김경미*

<차 례>

1. 서론
2. 19세기 소설사의 지형도
3. 19세기 소설사의 쟁점
4. 결론: 19세기 소설사의 전망

<국문초록>

이 글은 19세기 소설사 연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전망으로 19세기 소설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본 것이다. 먼저 소설, 작가, 독자/매체를 중심으로 19세기 소설사의 지형도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19세기 소설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한문장편소설의 작가층과 세계관 문제였다. 여기서는 그 예로 <옥수기>의 작가인 심능숙의 계급적 위치 및 세계관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았다. 한문장편소설의 출현은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대중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한문장편소설은 국문장편소설, 영웅소설 등 다른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섹션이나 방각본과 같이 소설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아울러 19세기 소설사 연구의 전망은 한문장편소설, 국문장편소설, 영웅소설, 애정전기소설, 판소리계 소설의 상호 관계, 작가, 독자, 매체와의 관계, 19세기 정치, 경제와 사회관계의 변화라는 큰 틀과의 관련 속에서 볼 때 새롭게 확장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19세기, 소설사, 한문장편소설, 옥수기, 심능숙, 판소리계 소설, 국문장편소설, 애정전기소설, 독자, 매체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서론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세기별 접근이 크게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세기별 접근은 현대적 관점에서 또는 비교적 관점에서 유용한 접근이지만 조선시대의 흐름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왕조별 이해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19세기라는 관점이 소설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을까? 19세기의 경우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다. 19세기는 정조 사후(1800년)로부터 시작해서 갑오개혁(1894), 개항 등으로 마무리되는 정조 시대의 개혁적 흐름이 끊어지고 노론 중심의 정국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조선 왕조가 무너지면서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기 전 단계라는 점에서 18세기, 20세기와는 확연히 다른 시대적 면모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기별 접근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적 측면에서 19세기는 소설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다.

19세기 조선 사회는 정조 사후로부터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층적인 모순을 드러냈으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 시기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수 세력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19세기 중, 후반의 여러 민란에서 보듯이 그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문학 장르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인정세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소설은 현실과의 접촉이 넓고도 직접적이다. 19세기 조선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속에서 소설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어떤 작품이 창작되었으며, 어떤 계층이 주된 작가층 또는 독자층이었으며, 어떤 기법적 성취를 이룩했는가?

소설사에서 19세기 소설은 18,19세기로 묶여서 함께 논의되거나 조선후

기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그 논의의 중심에 한문장편소설이 놓여 있었다. 17,18세기의 주류적 위치에 있었던 국문장편소설(또는 장편가문소설)이나 영웅소설은 서서히 쇠퇴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반적으로 19세기 소설사가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국문소설을 중심으로 소설사를 파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근대의 중심 장르 중 하나인 소설이 근대로의 이행기인 19세기에 이르러 주춤하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한문장편소설과 그 작가층에 대한 연구는 국문소설 중심의 소설사 이해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한문소설이 독자층이 적고 식자층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한문소설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면서 19세기 소설의 주류적 위치에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0여 년간 19세기 한문장편소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제 한문장편소설은 19세기의 주요 서사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상대적으로 판소리계소설이나 국문장편소설, 영웅소설의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19세기 소설사의 전반적인 경향이나 추이를 보지 못하게 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에 오면 한문장편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는 한편, 방각본 출판이 확대되어 소설이 상품으로 유통되고, <옥루몽>, <옥수기>, <난화몽>, <춘향전> 등의 예에서 보듯이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상호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국문장편소설 역시 독자의 폭이 넓어지면서 계층 사이에, 국문 한문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섞여드는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서 19세기 소설사의 쟁점과 전망을 다

1)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203~234쪽.

룬다. 지금까지 19세기 소설 연구에서 쟁점이 된 것은 한문장편소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19세기 소설사에 는 많은 쟁점들이 잠복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부각시키면서 향후 19세기 소설사 연구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도된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소설사의 지형도를 먼저 그리는 일부부터 시작함으로써 19세기 소설사에 어떤 쟁점 이 묻혀있는지, 이를 어떤 관점에 놓고 보아야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될 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19세기 소설의 지형도

19세기 소설의 지형도 그리기는 소설이 19세기에 들어와 어떻게 존재 했는가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작품, 작가, 매 체를 중심으로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지형도를 그릴 경우 19세기에 존재 했던 소설들의 종류나 분포가 어떠한지, 19세기 소설의 작가층의 신분 이나 지역적 분포가 어떠한지, 독자층은 어떻게 존재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더하여 문자에 따라 한문소설, 국문소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도 19세기 소설사의 지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문소설은 이미 몇 차례의 정리가 이루어졌고,²⁾ 한문소설과 국문 소설이 근접해 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구분해서 다루 지 않고 함께 다루었다.

2) 김홍규의, 『한국한문소설목록』, 『고소설연구』9, 2000, 369~451쪽/김경미, 위 글, 203~234쪽./이상구, 17~19세기 한문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연구』21집, 2006, 23~60쪽.

1) 소설의 지형도

(1) 장편소설

19세기 소설사의 특징은 한문장편소설이 본격적으로 출현했다는 점이다. 국문장편소설은 이미 17세기에 등장했다. 유교적 가부장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가문의식을 주요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국문장편소설은 17세기 가문의식의 성장과 관련을 맺고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19세기에 창작된 작품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19세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작품이 <하진양문록>이다. <하진양문록>의 경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여종의 이본이 있고, 세책필사본도 있어 19세기에 유행한 소설로 꼽힌다.³⁾ 국문장편소설은 17세기 후반에 성립을 본 이래 18세기에 사대부가의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성행하였다가 19세기에 이르러 점차 쇠퇴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증거로 홍희복(1794-1859)의 <제일기언> 서문이 거론된다. 홍희복은 중국 번역 소설, 국문 장편소설, 방각본 소설의 작품 이름을 들고 나서 중국소설의 번역, <유씨삼대록>, <옥원재합>, <임화정연> 등 국문장편소설, <숙향전>, <풍운전>과 같은 소설이 당시 소설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모두 작품 세계나 하는 말이 대동소이하며, 이런 작품들은 부인 여자와 無識賤流가 즐겨 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⁴⁾ 여기에 거론된 작품들의 독자층을 부인여자와 무식천류라고 한 것을 보면 국문장편소설이나 <숙향전>, <풍운전> 등 중편국문소설의 독자층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홍희복이 이 작품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홍희복이 국문소설을 저급한 것으로

3)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화사연구』39, 민족문화사학회, 2009, 28~31쪽.

4)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한중문화비교의 연구』, 고대출판부, 1987, 1~220쪽.

보았던 당대의 소설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며, 둘째, 영웅소설이나 국문장편소설이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쇠퇴의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흥희복의 견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19세기에 이르러 국문 장편소설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전의 작품 세계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이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는 조선후기로 오면서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의 담당층이나 작가층이 서로 근접해 간 결과로 볼 수 있다.⁵⁾

한문장편소설의 창작은 19세기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김소행(1765-1859)의 <삼한습유>(1814), 남영로(1810-57)의 <옥루몽>(1832-40년경), 심능숙(1782-1840)의 <옥수기>(1835-40년경), 서유영(1801-74?)의 <육미당기>(1863), 정태운(1849-1909)의 <난학몽>, 이정균(1852-99)의 <홍무왕연의>(1887), 박태석(?)의 <한당유사>(1852), 작자 미상의 <옥선몽>⁶⁾, <구운기> 등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듯이 한문 장편소설의 작자층은 상층 사대부에 속하기는 하나 정치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문인들(심능숙, 서유영, 남영로), 서얼 출신의 문인(김소행), 몰락 사대부의 위치에 있던 인물(정태운)⁷⁾, 중인 혹은 몰락 양반으로 추정되는 인물(<옥선몽>)들이다. 이정균에 대해서는 정확

5)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141~142쪽

6) 서경희는 <옥선몽>이 19세기 전반에 일반화된 내용을 담고 있고, 19세기 후반의 서적을 참고했거나 그 경향을 따르는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그 창작시기를 19세기 후반으로 잡고 있다. 서경희, 『옥선몽연구-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3, 43쪽.

7) <난학몽>의 작가 신분에 대해서는 몰락 양반층일 것이 짐작되어 왔는데, 최근 정창권에 의해 정태운이 쓴 <난학몽> 한문본과 아울러 시문집인 <悟軒散稿>가 발굴되면서 그 구체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⁸⁾ <삼한습유>, <옥선몽>, <구운기>, <한당유사>를 제외한 <옥루몽>, <옥수기>, <옥미당기>, <난학몽> 등의 작품은 한글로 번역되어 함께 읽혔다. 한문장편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식적인 요소들이 작품의 한 구성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삼한습유>, <옥선몽>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2) 영웅소설

방각본 소설의 주종을 이룬 영웅소설 역시 18세기 중·후반에 활발하게 창작되었으나 19세기에는 쇠퇴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웅소설은 방각본 출간에 힘입어 19세기에 들어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는 했으나 전대의 영웅소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중세 해체기로서의 19세기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상업적, 통속적인 경향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영웅소설은 대부분 국문으로 창작되었지만, 한문으로 창작되기도 했다. <봉래신설>이 여기에 속한다. <봉래신설>은 <방운전>, <봉래신설록> 등의 제목으로 한글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당대의 문체의식을 소설화하기보다는 상층의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소설적인 재미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통속소설로 평가된 바 있다.⁹⁾

<옥루몽>, <옥미당기>, <삼한습유>, <옥선몽> 등의 한문장편소설도 영웅소설의 면모를 내포하고 있으며, 통속적 창작 영웅소설이 작품적 성과의 절정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삼한습유>의 경우 작가가 느끼는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영웅소설 형태의 소설로 형상화한

8) <홍무왕원의> 서문에 이정균이 延安後人이라 한 것으로 보아 연안 이씨인 것 같고 다른 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김진영·안영훈(역주), 『김유신전』, 한국고전문학전집 22,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2쪽.

9) 박영희, 「<봉래신설> 연구」, 『한국고전연구』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203쪽.

것으로 평가된다.¹⁰⁾ 이러한 작품이 창작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면서 이러한 소설들이 좀더 많은 하층독자를 확보한 한편 상층 사대부 일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¹¹⁾

19세기에는 영웅소설의 변주로 여성영웅소설이 창작되었는데 기존의 틀을 가지고 오면서도 성별 배치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의식지향을 드러낸다. 한문으로 창작된 <편옥기우기(片玉奇遇記)>는 영웅소설로 보기도 애정전기소설로 보기도 애매하지만, 영웅이 고난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듯한 면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더 따져져야 한다.

(3) 애정전기소설

애정전기소설은 주로 한문중·단편소설로 창작되었다. 15세기 이래 문인 지식인층이 애호했던 전기소설은 19세기에 와서도 창작되었으나 그 형태나 문제의식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애정전기소설에는 목태림(1782-1840)의 <중옥전>(1803), 석천주인(石泉主人)의 <절화기담>(1809년 평비), <오유란전>, <포의교집> 등이 있다. 여기서 그 구체적인 면모가 알려진 작가는 목태림이다. 목태림은 경남 사천 출신의 양반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중인들이 하던 하급관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향촌 사족층으로,¹³⁾ <춘향신설>, <중옥전> 등의 소설을 창작했다. <절화기담>의 작가인 석천(石泉)은 중인¹⁴⁾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10)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39~41쪽.

11) 전성운, 앞 책, 159쪽.

12) 한의승, 『片玉奇遇記』의 소설사적 성격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47, 2006, 111~112쪽.

13) 정선희, 『목태림 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1, 6-14쪽.

14) 김경미, 『<절화기담> 연구』, 『한국고전연구』창간호, 한국고전연구회, 1995, 139~160

<포의교집>의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 벌열 가문의 주변에 기식하며 벼슬자리를 엿보는 이생이라는 인물과 남편이 있는 행랑어머님의 사랑을 그리면서 이들을 둘러싼 시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⁵⁾ 작자 역시 그 주변부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종옥전>과 <오유란전>은 사대부와 기녀의 애정을 다룬 작품으로 사대부에 대한 풍자가 회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은 서울을 배경으로 양반과 유부녀인 여종의 연애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애정전기는 <금오신화>를 정점으로 16, 17세기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는데, 19세기에 출현한 작품들은 전기소설이 갖는 기이(奇異)의 속성이 현저하게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작품은 양반에 대한 풍자(<종옥전>, <오유란전>)나 서울의 시정 세태를 배경으로 변화하는 남녀 관계의 양상, 성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여성 인물들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중단편 한문소설인 <낙동야언(洛東野言)>은 장희체 소설로 애정전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회작적 성격이 더 강해진 작품이다.¹⁶⁾

(4) 몽유록계소설

김면운(1775-1839)의 <금산몽유록>, 김제성의 <왕희전(南湖夢錄)> (1840), 윤치방(1794-1877)의 <만옹몽유록>(1869)¹⁷⁾ 등이 여기에 속한

쪽에서 “追書于薰陶坊精舍”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한미한 양반 혹은 중인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훈도방이 중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것으로 미루어 중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 <포의교집>에 대해서는 이승복, 『한문소설 <布衣交集>의 인물 형상과 소설사적 의의』, 『규장각』21, 1998, 123~139쪽.

16) 정병호, 『19세기 漢文小說 <洛東野言> 解題 및 註釋』, 『동방한문학』25, 동방한문학회, 2003, 362~369쪽.

다. 김제성은 김해 김씨로 과거시험은 보았으나 관직을 지낸 인물은 아니고, 윤치방 역시 몰락 양반에 가까운 향촌 사족층으로 보인다. <금산몽유록>과 <만옹몽유록>은 짝막한 길이의 단편으로 몽유지는 역사적 현실에 비분강개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천하를 주유할 뜻을 품고 있는 인물들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만옹몽유록>은 몽유를 통해 산수가 아름다운 공간에서 신선을 만나 함께 중국의 명승지를 찾아다니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여행 모티프를 수용하거나(<만옹몽유록>) 편지 양식을 수용하여 서사를 전개(<금산몽유록>)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19세기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왕회전>은 17세기 후반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화사몽유록>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큰 폭의 개작이 이루어진 장편 몽유록이다.¹⁸⁾ 이 작품은 한 고조 유방이 여러 나라의 창업한 왕과 나라를 중흥시킨 왕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고, 역대 군신들을 포폄하고 제왕들을 평론하면서 즐기자 항왕을 비롯해 여기서 소외된 군주들이 전쟁을 일으켜 이를 평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갈량, 장량, 이백, 소식 등을 비롯한 역대의 책략가, 문장가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항우가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옹몽유록>에서도 항우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초패왕전>이나 <삼한습유>와는 다른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19세기의 몽유록 작품에서 공통적인 점은 정치·사회적인 의식이 전대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5) 번역소설

중국소설의 번역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고, 19세기에 이르러서도 중국소설의 번역은 계속되었다. 당시 소설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홍희복도

17) 김정녀, 「<만옹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제9집, 고소설학회, 2000, 297~334쪽.

18) 임치균, 「<왕회전> 연구」, 『장서각』2, 정신문화연구원, 1999, 67~87쪽.

중국소설 <경화연>을 <제일기연>이란 제목으로 번역했다. <제일기연>이 어느 정도로 독자를 확보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홍희복이 당대 소설의 문제를 진단하고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화연>은 19세기 소설 독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작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와 지식을 아우른 작품에 대한 요구였을 것이다. 외국 소설의 번역은 소설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 소설의 번역이 계속해서 큰 자극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소설은 19세기 말 왕실의 후원으로 <홍루몽> 계열의 작품, <설월매전>, <여선외사>, <쾌심편>, <요화전>, <충렬오소>, <진주탑> 등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는 독자층을 유지하고 확산하지 못했으며 창작의 자양분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¹⁹⁾ 그러나 이외에 어떤 소설들이 더 번역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시 독자들이 국내 작품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시의 독자나 작가들이 중국의 일이나 옛날의 일보다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1809년 작으로 추정되는 <절화기담>을 평비한 남화자(南華子)라는 호를 가진 인물은 ‘추서(追序)’에서 패설은 대개 중국 것을 숭상하나 중국 것이 우리나라 것보다 나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 인정이 본디 그러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즐겁게 여기고 옛 것을 좋아하고 요즘 것은 좋지 않게 여기며, 먼 데 것을 좋아하고 가까운 것은 싫어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을 때는 반드시 중국 것을 쓰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볼 게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화기담>은 ‘우리나라의 것이고 요즘 이야기’로서 내용이 절실해서 <서상

19) 유준경,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26, 2000, 109~133쪽.

기>와 짝을 이룰 만할 정도라고 평가하고, 속되고 촌스럽기는 해도 자세하고 곡진하니 크고 지극한 문장이라고 칭찬하였다.²⁰⁾ 여기서 남화자는 세 가지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일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일을 썼다는 점, 즉 중국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옛날 일이 아니라 요즘 일이라는 점, 셋째, 귀한 신분의 인물을 다루지 않고 천한 인물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당시 서울의 시정을 배경으로 한 <절화기담>은 주체적인 문화의식의 일단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조선의 일을 다룬 소설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외 판소리나 국문소설을 개작, 번역한 소설도 출현했다. 이러한 작품들을 번역소설로 볼 것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것 역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이라는 점에서 번역소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춘향전>을 개작한 목태림의 <춘향신설>(1804)과 <수산광한루기>, <홍길동전>을 한역한 <위도왕전>이 속한다. <수산광한루기>의 작가나 평비자는 평비자인 소염(小廣)은 서울의 중인 출신인 장혼(1759-1828)의 아들 장욱(1789~?)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춘향신설>과 <수산광한루기>는 이 시기 한문소설과 판소리, 상층문화와 하층문화가 섞이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20) “稗說尙華，非華勝東。人情固然，輒以未聞睹爲快，好古非今，樂遠厭近。非東之病，乃天下同病。東人著說必用夏，必曰，東無觀焉。蓋今說東且今，則東無觀，今尤何論。然事甚切，至與西廂說相表裏。雖美且賤，不過衣縷而頭蓬，不施膏不染紛，玩好無見稱，巾裳絕焯然。所謂工雖巧，朽不雕，瓦不琢也。然意極而情篤，若是可觀焉。若身錦頭翠，金鏤玉成，則豈特西子無光，玉妃失顏。然則富辭曷，必倍於此矣。……俗且俚，既詳且盡，吾子文章大且至矣夫。” <절화기담> 卍序, 70-71쪽.

21) 김동욱, 『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83~87쪽, /강명관, 『18·19세기 경아전과 예술활동의 양상』,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127~128쪽, / 정길수, 『광한루기 평비 분석』, 『동방한문학』36, 2008, 216~217쪽.

(6) 판소리계 소설

18세기에 서사와 음악이 결합한 새로운 양식으로 자리 잡은 판소리는 19세기에 들어서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널리 향유되면서 소설로도 정착했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에는 다분히 19세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²²⁾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는 판소리계 소설뿐만 아니라 판소리에 도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판소리 유과가 분리되고, 상류층이 판소리에 애호가로 등장하면서, 판소리 광대의 신분 변화가 나타났으며, 광대의 사승관계가 얽히고 지역간 교류도 이루어지며, 판소리 더늠의 개발이 왕성해지면서 소박하고 고졸한 상태에서 화려한 예술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상황에서 <심청전>의 경우, 그 변화가 계열을 뛰어넘을 정도로 컸고, 이러한 변화는 이후에 필사되는 동안 문헌을 통해 반영되었다.²³⁾ 즉 19세기를 거치면서 필사본 <심청전>은 판소리와 병렬적으로 존립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 수용 양상은 이분마다 다를 것이다.²⁴⁾ 이렇게 볼 때 19세기 소설사에서 판소리 창본과 판소리계 소설은 서로 교호하는 지점을 보이면서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문화적 장을 재현하는 역사적 서사 장르로 존재했다.²⁵⁾ 위에서 언급한 <광한루기>, <춘향신설>도 판소리계 소설의 자장에 있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출간된 완판 <춘향전>의 경우를 보건대²⁶⁾ 19세기적 경향이 20세기

22)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91~492쪽.

23)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의 계열과 전승시기 연구」, 『판소리연구』 제11집, 2000, 177쪽.

24) 김영수, 위 글, 178~180쪽.

25) 주형예, 위 글, 494쪽.

26) 전상욱에 의하면 완판 26장본이 1908년, 33장본이 1906년, 84장본이 1908년에 출간되었다. 전상욱, 「완판 춘향전의 변모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제26집, 2008, 201~228쪽.

초까지 이월된 것을 알 수 있다.

2) 작가의 지형도

19세기 소설 작가의 지형도를 그리기는 어렵다. 우선 위에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소설이 각축하고 있었으나 작가가 알려져 있는 작품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군은 한문장편소설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그 생애가 알려져 있는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작가층은 신분적으로는 사대부, 몰락 사대부, 서얼, 지역적으로는 서울, 근기 지방 출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옥수기>의 작가 심능숙, <육미당기>의 작가 서유영, <옥루몽>의 작가 남영로 등은 상층 사대부 가문의 후손으로 낮은 벼슬이나마 했던 근기 지방의 사대부이다. <왕회전>의 작가 김제성은 지방의 문인으로 과거에 합격한 경력은 있으나 평생 관직에 나가지 못한 인물이고, <난학몽>의 작가 정태운은 몰락 사대부의 위치로 떨어진 인물이다. <삼한습유>의 작가 김소행은 서얼 출신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들은 대체로 서울, 근기 지방에 살았으며, 서울 근기 지방의 문사들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교류했다. 이들 가운데 심능숙, 서유영 등은 시사(詩社)를 결성하기도 하고 또 여러 시사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문예 활동을 했다.²⁷⁾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위치에 있었다. 김제성, 정태운 등은 심능숙, 서유영, 남영로 등에 비하면 더욱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다. 김소행 역시 주변적이고 소외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서얼이었다.

19세기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적 지식인층을 19세기의 새로

27) 장효현, 『서유영문학의 연구』, 1988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운 작가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중간적 지식인층을 조선후기의 새로운 작가층으로 부각시킨 전성운은 이들을 어느 정도 문식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토대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부류의 인물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매문(賣文)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학 경전에 대한 지식과 실생활에 직접 소용되는 의약, 점술, 지사적(地師的) 지식을 습득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는 상업 경제의 발달과 함께 부의 축적을 위해 한양으로 몰려든 계층을 포함해서 대가집의 문객 또는 겸인으로 활동하며 출사할 기회를 노리는 룸펜적 지식인의 면모를 지닌 채 살아가는 지식인 그룹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의 창작층 일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²⁸⁾

19세기에는 방각본 소설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방각본 출판의 주체는 작가라고 하기보다는 상인의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소설의 상품화를 통해 소설 시장을 넓히는 역할을 했으며, 이것은 20세기 출판 시장의 확장을 준비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평가된다.²⁹⁾ 방각본 출판을 담당했던 이들 상인들을 작가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작품 선정은 물론 작품 내용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방각본이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그대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축약되거나 편집되었는데, 경판본의 경우 절략본 출판으로 인해 작품성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보다 소설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³⁰⁾ 20세기 초 활판본 출판에서도 상인의 영향력이 결정되었던 점

28) 전성운, 156~159쪽.

29)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27, 고소설학회, 2009, 206쪽, 225쪽.

30) 유준경은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된 예로 완판본 <이대봉전>을 들었다. <조웅전>과 함께 크게 인기를 누린 <이대봉전>은 경판본은 없고 1908년에 출판된 완판본만이 남아 있는데, 현재 전하는 <이대봉전>의 필사본과 방각본은 그 내용에서 부

으로 미루어 ‘작가의 권리’가 부재한 19세기의 소설 출판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³¹⁾

3) 독자/매체의 지형도

독자의 확대와 소설 매체의 다양화는 19세기 소설사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다. 먼저 독자는 한문소설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 독자의 확대, 방각본 출간과 세책을 통한 대중 독자의 확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지식인 독자는 16세기 이래 존재해 왔지만,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독자는 이들과는 조금 다르다. 한문장편소설의 독자는 먼저 지식인 독자를 상정할 수 있는데 <육미당기>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서문이나 발문을 통해 비평도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독자들이었다. 한문장편소설 가운데 <옥루몽>, <옥수기>, <난학몽> 등은 국문으로 번역되어 여성 독자나 한글을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19세기는 한문소설, 국문소설의 독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넘나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소설 독자의 확대에 기여한 것은 세책본과 방각본이었다. 책을 대여해 주는 세책본과 상업적 목적으로 출간된 방각본 소설의 정확한 출현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세책장부에 기록된 대출인들은 최상위 계층, 관료 계층, 일반 민서 계층, 무관 계층, 상인 계층, (하층) 여성 계층, 하층 계층 등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적인 차이를 보이며, 방각본과 동일한 계열의 필사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34, 2008, 253쪽.

31) 주형예, 앞의 글, 208쪽.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인 계층과 일반 민서 계층이다. 그리고 아주 짙막한 작품으로부터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폭넓게 향유한 인물들이 있다.³²⁾ 세책본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면, 방각본은 서울 지역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방각본 소설의 독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소설 독자에 비해 하층이 향유했다. 방각본이 가장 유행한 곳은 서울과 전주인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정의 하층 남성과 중하층 여성이 독자였다. 경판 방각본은 처음에는 한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중·하층 남성을 대상으로 출판되다가 1850년 이후는 주로 하층 남성, 중·하층 여성을 주 구매대상으로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³⁾ 세책본이나 방각본이 상품으로 유통되면서 독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의 확대는 19세기 소설사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3. 19세기 소설사의 쟁점

이상의 지형도를 통해 19세기 소설은 유형적으로도 다양해졌고, 소설 작가층이 형성되었으며, 세책본이나 방각본으로 인해 독자층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책본이나 방각본과 같은 소설의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팔릴 만한 소설, 즉 독자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설의 미학이나 주제 의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³⁴⁾ 따라서 19세기

32)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고소설연구』16, 고소설학회, 2003, 84~90쪽.

33) 유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문고전연구』13, 2006, 277~278쪽.

34) 이에 대해서는 주형예, 앞의 글 2009, 201~229 참조.

소설사의 이러한 복잡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쟁점의 재설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적인 특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작품, 작가, 매체, 독자의 지형도가 이데올로기, 젠더, 통속성, 상업화의 문제와 어떤 관련 속에 놓여 있는지, 19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관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위에 항목화한 문제들이 19세기 소설사의 관점에서 조망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의 지형도에 의하면 이 시기의 새로운 현상은 내용이나 기법상의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한문장편소설과 그 작가층,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의 근접, 판소리계 소설의 등장, 세책본과 방각본의 본격적인 등장, 독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9세기 소설사의 쟁점은 한문장편소설 작가층의 성격, 사상적, 이념적 지향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사상이나 이념적 지향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19세기에 사대부 문인이 장편소설을 창작했다는 점, 소설 속에 사상이나 이념적 지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층의 성격과 사상, 이념적 지향은 서로 맞물리는 문제로 이후 연구사에서는 작가층의 성격과 관련하여 사상, 이념, 혹은 세계관이 쟁점화되었다.

작가층과 세계관의 문제는 <옥수기>의 작가 심능숙, <옥루몽>의 작가 남영로, <육미당기>의 작가 서유영을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이 세 작가는 서울 근기에 살았고 서로 교유한 흔적이 있으며, 소설을 창작했다는 사실은 이들을 계급적, 지역적,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그룹으로 인식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 작품이 상층 사대부의 세계관을 표현한 작품인가, 소외되어 가는 사대부의 세계관을 표현한 작품인가, 도가적 지향이 강한 작품인가, 도가적 이념은 소재적인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작품인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중세적 이념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세계관을

담은 작품인가, 아니면 중세 이념을 해체하는 작품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논의의 내용을 일일이 예로 들 수는 없고 <옥수기>와 <육미당기>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논쟁의 지형을 그려보기로 한다. <옥수기>에 대해 상층 사대부의 세계관을 표현한 작품으로 본 김종철은 19세기 초 사대부 세계관의 구체적 면모로 벌열층이나 당대 현실의 모순에 대한 사대부 관점에서의 비판, 사대부 이념의 구체적 실현, 하층과의 계층적 대결, 정치적 대결과 벌열 집단으로서의 면모, 현실적 이념의 실현에 이은 도선적 세계의 추구를 들었다.³⁵⁾ 이러한 시각은 그 다음 논문에서도 이어져 <옥수기>, <육미당기>, <옥루몽>의 작가들을 상층 사대부 계급에 속하는 인물로 파악하고, 이 소설들은 상층 사대부의 세계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보수화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장효현은 심능숙이 벌열층에 속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19세기 한문장편소설에 드러나는 사대부 작가들의 세계관이 19세기라는 근대 전환기의 시대성에 비추어 일정 수준 한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벌열층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작품이 벌열층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³⁶⁾ 전성운은 심능숙의 계급적 성격을 소외된 사대부로 규정하고, 보수 지향적 인물이라기보다는 강건한 중세적 사고를 벗어나려는 인물로 파악하였다. 그는 19세기 한문장편소설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옥루몽>과 <옥수기>에는 19세기 들어 소외되어 가는 사대부로서의 작가의 비판적인 현실 진단과 그 저변에 놓인 위기의식이 드러난다고 지적하였

35) 김종철, 『<옥수기> 연구-작품구조와 세계관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1집, 서울대학교, 1985, 123쪽.

36) 장효현, 『19세기 한문 장편소설의 창작 기반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소설사 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363쪽.

다.³⁷⁾ 이병직은 심능숙이 상층 벌열층 세계관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옥수기>에는 유가적 세계관과 도선적 세계관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도선적 경향이 소재적 차원에서 미학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⁸⁾ 김경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도선적 경향이 소재나 배경으로 존재할 뿐³⁹⁾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장효현은 심능숙이 선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주인공이 단약을 먹고 장생불사하는 것이 심능숙이 작품을 통해 구현해 보고 싶은 궁극적 지향이라고 밝히면서 소재적 차원이라는 견해를 반박하였다. 또 김종철의 견해에 대해 <옥수기>에 수용된 도선적 세계의 존재 양상을 그의 사대부로서의 계급적 세계관의 표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豪爽不羈’한 氣象의 표출이거나 혹은 ‘척락무료로부터의 일탈’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혔다.⁴⁰⁾

<육미당기> 역시 유가적 세계관과 도가적 세계관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장효현은 도선과 불교에의 경도를 통해 서유영이 반중세적 사유의 양태를 띠고 있다고 보았는데, 서유영의 도선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낭만적, 신비주의적 경향이 짙은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유가 이념을 대체할 만한 이념으로까지 인식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유가적 선비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도선으로부터는 낭만적, 신비주의적 취향을 구하고 불교로부터는 주자주의에 대체할 이념을 상정한 서유영의 사상의 궤적과 부합된다고 보았다.⁴¹⁾ 이강옥은 <육미당기>는 봉건적 신분 질서를 전체

37) 전성운, 앞 논문, 77-78쪽.

38) 이병직, 『<옥수기>에 반영된 심능숙의 세계관 검토』,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8.

39) 김경미, 『옥수기 연구-이념적 소재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2004, 293쪽.

40) 장효현, 『한국고전문학의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337~8쪽.

41) 장효현, 앞 책, 65쪽.

로 하여 유가적 이념을 구체적 사건 속에서 실현하고자 했음을 암시한다고 보았다.⁴²⁾ 그러나 최경환은 현세적인 규범점 덕목의 실천과 개인과 가문의 영달과 번창이라는 유가적인 가치는 중국적으로 소멸되고, 소선과 6미인이 선계로 귀의함에 따라 도가적인 가치가 긍정된다고 보았다.⁴³⁾ 심치열은 김소선 일행의 ‘신라→중국→신라→보타산’의 이동 경로는 작가가 소망하는 의식 세계로 신라와 함께 도선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갈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육미당기>는 문화적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드러내며 백운영을 중심으로 도선적 사유 체계가 일관되게 표방되면서 장생불사의 도교적 중심 사상으로 승화된다고 보았다.⁴⁴⁾

위에서 보듯 한문장편소설을 둘러싼 쟁점은 주로 작가층의 위치와 세계관의 문제였다. 그리고 중세적 세계관인 유가적 세계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도가적, 불가적 세계관, 혹은 제 3의 道를 모색⁴⁵⁾하는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 그간의 논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런데 도가적, 불가적 세계관이 유가적 세계관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중세적인 세계관의 해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세기의 불가적, 도가적 지향 역시 중세적 세계관의 일환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작가층의 세계관이 유·불·도라는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탈이념적인 성향으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문장편소설이 19세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한문장편소설을 하위유형으로 설정한 논의가 뒤이어 나왔는데, 이는 <옥수기>, <옥루

42) 이강옥, 『육미당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김진세(편), 집문당, 1990, 829쪽.

43) 최경환, 『<육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월인, 2002, 140~150쪽.

44) 심치열, 『<육미당기> 연구』,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45)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186~198쪽.

몽>, <육미당기>를 장편영웅소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설정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창작기반과 유형적 특성을 다룬 이기대는 근기사족에 속하는 한문장편소설의 작가들은 결코 지배계층에 편입될 수 없는 계층으로, 경화사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의 상층적 시각과 자긍심, 동시에 소외감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가졌을 것이며, 소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상화시킨 세계를 드러내고, 그로써 스스로를 위안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 국문으로의 번역이 이루어졌어도 독자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이전의 사족층 남성들의 장편소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을 드러내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 작가의 이상적 삶을 드러내는 것을 공통된 주제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⁴⁶⁾

<옥수기>를 비롯한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하거나 한문장편소설을 하나의 유형으로 놓은 연구에서 부각된 쟁점은 작가군의 성격과 이념적 지향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작품들이 19세기 조선사회의 정치, 경제와 사회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해 내고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문장편소설이 19세기 상업의 발달, 상층의 분화, 사상의 변화 속에 등장했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작가층의 성격과 관련하여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 한문장편소설이라 하더라도 <삼한습유>와 <옥수기>, <옥루몽>, <육미당기> 등과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당대의 문제를 직접 다룬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인가, 아니면 서얼 출신의 작가와 당대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기는 했지만 사대부 계층에 속하는 작가와의 차이인가? <삼한습유>는 당대 여성의 문제와 서얼로서의 작가 자신의 문제를 결합해서 창작하면서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그

46)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27~29, 202~208쪽.

러나 당대의 문제를 가져오면서도 신라를 배경으로 하고,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환상적인 결구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추구한 것에서 또 다른 한계를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19세기 소설사에는 많은 쟁점들이 잠복되어 있다.

첫째, 장편소설, 영웅소설, 판소리계소설, 애정전기소설, 몽유록계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조 사후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이 시작되는 근대 초입에 이르는 시기 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으며, 소설은 그러한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 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이 시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존재했을까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19세기 소설사를 주도한 소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어떤 작품이 독자층을 폭넓게 확보했는가, 어떤 작품이 당대의 시대 의식을 가장 문제적으로 드러냈는가, 어떤 작품이 기존의 서사 형식을 탈피한 새로운 플롯을 창안해 냈는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의교집>은 기존의 애정전기나 영웅소설의 플롯을 벗어난 새로운 설정을 시도했지만 미완의 플롯으로 끝난다. 이는 유부녀인 초옥과 유부남인 이생의 사랑, 다른 애정전기에서 달리 결혼 유무에 얽매이지 않는 초옥의 태도, 그리고 돌연한 이별에 대해 새로운 문제 설정은 했지만 하나의 플롯으로 완성해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포의교집>이 주는 파격성을 소설 형식으로 소화해 내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19세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던 소설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신활자로 출판되면서 대중적인 보급이 확산되지만, 그것은 ‘고소설’이라는 위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19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소설 작가층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넷째, 19세기 소설사의 주도적인 흐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시기에 소설은 작품 유형, 작가층, 내용의 측면에서 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그런데 20세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살아남은 작품군은 영웅소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판소리계 소설 또는 판소리가 여전히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이는 한문장편소설이나 국문장편소설의 위상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다.

4. 결론: 19세기 소설사의 전망

지금까지 19세기 소설사의 지형도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9세기 소설사뿐만 아니라 소설사라는 관점을 취할 때 개별 작품의 이분 상황이나 개별 작품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넘어설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소설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소설사를 조망할 때는 주로 유형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영웅소설 플롯은 소설사 전개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기준처럼 사용되었다. 이는 작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고소설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유효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소설사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 독자, 작품의 측면은 물론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까지 포괄해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이는 소설이 사회와 어떤 관련 속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일정한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론은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소설 중심적이면 동시대의 다른 문학 장르와 대비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대적 관점에서 소통하기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론뿐만 아니라 젠더, 정신분석, 탈식민, 해체주의, 섹슈얼리티, 지역의 관점에서 읽어낼 필요도 있다. 그것은 고전연구에서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운 쟁점들은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젠더의 관점은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플롯으로 볼 때와는 다른 쟁점을 끌어내며, 오늘날의 현실과 접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 독자, 작품, 매체의 관계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19세기 소설사 연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전망으로 19세기 소설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본 것이다. 지금까지 19세기 소설사의 쟁점으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한문장편소설의 작가층과 세계관의 문제였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한문장편소설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문장편소설이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독자층이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문장편소설의 위치를 다른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한문장편소설과 국문장편소설의 차이, 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의 교섭, 작가층과 이데올로기의 문제, 소설의 상품화와 통속성의 문제,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을 아울러 보는 문제 등을 19세기라는 역사적 지평에서 다른 문학 장르의 전개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명관, 「18·19세기 경아전과 예술활동의 양상」,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 127~128쪽.
- 김경미, 「〈절화기담〉 연구」, 한국고전연구회 창간호, 1995, 139~160쪽.
-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학연구소, 2000, 203~234쪽.
- 김경미, 「옥수기 연구-이념적 소재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7, 2004, 275~298쪽.
- 김동욱, 『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1~494쪽.
-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의 계열과 전승시기 연구」, 『관소리연구』제11집, 2000, 161~195쪽.
- 김정녀, 「〈만옹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제9집, 2000, 297~334쪽.
- 김종철, 「〈옥수기〉 연구-작품구조와 세계관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1집, 서울대학교, 1985.
- 김진세(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260~280쪽.
- 김진영·안영훈(역주), 『김유신전』, 한국고전문학전집 22,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462쪽.
- 김홍규외, 「한국한문소설목록」, 『고소설연구』9, 2000, 369~451쪽.
- 박영희, 「〈봉래신설〉 연구」, 『한국고전연구』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177~205쪽.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415쪽.
- 서경희, 『옥선몽연구-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15쪽.
- 심치열, 「〈육미당기〉 연구」,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131~174쪽.
- 유준경,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 26, 2000, 109~133쪽.
- 유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34, 2008, 229~265쪽.
-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19쪽.
-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학사연구』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28~56쪽.
- 이병직, 「〈옥수기〉에 반영된 심능숙의 세계관 검토」,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국

- 어국문학과, 1998, 179~199쪽.
- 이상구, 「17~19세기 한문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연구』21집, 2006, 23~60쪽.
- 이승복, 「한문소설 <布衣交集>의 인물 형상과 소설사적 의의」, 『규장각』21, 1998, 123~139쪽.
- 임치균, 「<왕회전> 연구」, 『장서각』2, 정신문화연구원, 1999, 67~87쪽.
- 장효현, 「19세기 한문 장편소설의 창작 기반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소설사 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362~380쪽.
- 장효현, 『한국고전문학의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1~503쪽.
- 장효현, 『서유영문학의 연구』, 아세이문화사, 1988, 1~301쪽.
- 전상욱, 「완관 춘향전의 변모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제26집, 2008, 201~228쪽.
-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1~389쪽.
- 정규복,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대출판부, 1987, 1~280쪽.
- 정길수, 「광한루기 평비 분석」, 『동방한문학』36, 2008, 213~244쪽.
-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고소설연구』16, 2003, 71~99쪽.
- 정병호, 「19세기 漢文小說 <洛東野言> 解題 및 註釋」, 『동방한문학』25, 동방한문학회, 2003, 362~407쪽.
- 정선희, 「목태림 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1, 1~191쪽.
-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1~224쪽.
-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89~518쪽.
-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27, 고소설학회, 2009, 201~229쪽.
- 최경환, 「<육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월인, 2002, 1~268쪽.
- 한의승, 「『片玉奇遇記』의 소설사적 성격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47, 2006, 91~116쪽.

ABSTRACT

The Central Issues and Prospective Consideration in the
History of the 19th Century Novels

Kim, Kyung-Mi

This essay tries to show the central issues in the studies of the 19th century novels and then to consider the prospective way to see those novels. For this purpose, I firstly attempted to describe the map of the history of the 19th century novels with consideration of works, authors, reading publics and media. I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history of the 19th century novels, the issue of the authors' social status and their world-views in Korean classical novels in Chinese character had been mainly focussed. One exemplary study of this trend is found in the study on *Oksooki*, where the writer, Simneungsook's status in his society and his world-view were focussed. The emergence of Korean classical novel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a new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the 19th century novels. But in the aspect of popularity, it shows some limits. Therefore the historical meaning of Korean classical novels in Chinese character will be fully understood when they are studied with consideration of both the relation with other kinds of novels such as full length novels written in Korean language and hero novels, and the context where the lending novels or the bang-gak novels began to be circulated as a commodity. The prospective study of the history of the 19th century novels is expected to extend in an enlarged framework involving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kinds of novels such as Korean classical novels in Chinese character, full length novels written in Korean language, hero novels, Cheongi-oseol which focussed on love story, and Pansori novels, the relationship of authors, reading publics and media and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19th century, the history of novels, Korean classical novels in Chinese character, *Oksooki*, *Simneungsook*, Pansori novels, full length novels written in Korean language, Cheongi-*soseol* which focussed on love story, reading publics, media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